

장기빈곤이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임 세 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빈곤층의 세대 간 계층이동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적자원 이외에 다른 자원이 거의 없는 빈곤층의 경우 자녀의 학업 성취를 통한 이후의 직업적 지위 획득이 빈곤의 세대간 계층 이동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경로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나타난다(구인회·김순규 2003; 김현주·이병현 2005). 그런데, 빈곤의 시기와 지속성, 정도에 따라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의 지속성이 달라진다(Korenman, Miler & Siaastad, 1995; Brooks-Gunn & Duncan 1997). 장기빈곤아동의 경우 단기빈곤아동보다 더 나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빈곤을 균질한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빈곤을 장기빈곤과 단기 빈곤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하더라도 모든 아동들이 빈곤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이론적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력성(resilience)에 가장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Zimmerman & Arunkumar 1994)가 지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단기 빈곤이 아동의 교육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때 부모자녀애착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애착관계의 정도에 따라 빈곤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및 변수의 설정

본 연구는 노동패널 6차년 도의 data(1998-2003)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 성취는 고등학교 학생의 주관적 응답인 5분위 학교성적을 이분화하여 로짓 분석을 실행하였다. 부모 자녀의 애착관계가(부모자녀의 진학관련 대화정도가 기존의 교육성취 결정 요인, 특히 빈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기 위해 로짓 분석을 기본 모형 애착관계 모형,

빈곤과 애착의 상호작용 모형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하였다.

빈곤선은 최저생계비 1.2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장기빈곤가구와 단기빈곤가구의 구분기준은 생명표 분석을 통해 누적 빈곤 지속 확률을 이용하였다. 단기빈곤가구는 빈곤기간이 1,2,3인 가구로 장기빈곤가구는 빈곤기간이 4,5,6인 가구로 하였다.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부모자녀간의 진학관련 대화정보로 측정하였다.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를 측정하는 척도인 ASS(Attachment Security Scale)는 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아동의 흥미정도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David & Mayseless 2001). 진학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그 대화에 흥미를 느낄 수록 부모자녀간의 진학관련 대화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간의 진학 관련 대화정도를 애착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기타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성,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소재지, 가구유형, 형제 수, 모의 교육 수준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3. 분석결과

로지트분석 결과 장기빈곤이 단기빈곤과 달리 교육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단기빈곤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단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측정상의 오차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비록 외국의 선행연구이지만 단기빈곤의 영향의 정도와 통계적 유의도가 모의 요소와 가족요소를 통제하자 사라진 반면에 장기빈곤은 다른 통제변수를 넣은 후에도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Korenman & Miler & Siaastad(1995). 또한 우리나라의 단기빈곤가구는 근로활동을 하면서 빈곤선의 경계에 머물면서 활발한 빈곤이행을 보여주는 가구들(구인회 2005)임을 감안할 때 비빈곤가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노동패널의 소득보고가 과소보고되었을 가능성과 빈곤선이 최저생계비의 1.2로 설정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측정상의 오차로 인해 단기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반면에 장기빈곤은 애착변수를 넣지 않았을 때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p < .10$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EXP(B) = -.981$)을 미치고 있었다. 장기빈곤가구의 고등학생의 경우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의 고등학생에 비해 학업성취가 높을 odds가 약 72.3%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빈곤가구는 낮은 소득이 만성화 되어있는 가구이다. 앞서 Hazard rate에서 나타났듯이 빈곤탈출의 가능성도 10% 미만이다. 만성화된 낮은 소득은 비빈곤가구에 비해 교육투자 자원의 유의미한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낮은 빈곤탈출가능성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에서 측정되지 않은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장기빈곤가구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1) 노동패널은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부모자녀 애착관계를 측정할 보다 적절한 변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밖에 남자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가 $p < .10$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EXP(B)=1.691) 그리고 인문계 및 특수고의 학업성취도가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EXP(B)=3.385)

애착모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진학관련 대화정도로 측정한 애착변수가 교육성취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진학관련 대화정도의 1단위 증가는 교육성취가 높아질 odds를 약 232.6%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변수의 투입은 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착변수의 투입으로 성별과 고등학교 유형의 회귀계수는 정적으로 증가하고 장기빈곤의 회귀계수는 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애착 변수와 교육성취 간에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애착변수가 성별과 고등학교 유형과는 정적인 관계를 장기빈곤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호요인으로서 애착관계에 따라 위험요인인 빈곤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빈곤애착상호작용모형으로 확인해 보았다. 장기빈곤가구이더라도 애착관계가 좋으면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의 수준에서 Exp(B)는 37.137이었다. 애착관계가 위험요인인 빈곤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기본모형과 애착모형에서와 달리 고등학교 소재지, 가구유형, 형제수가 $p < .10$ 또는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구일 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형제 수가 많을 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소재지의 영향은 선행연구와 달리 대도시일 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애착상호작용항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1 로짓 분석>

	기본모형		애착모형		빈곤애착 상호작용모형	
	B	EXP(B)	B	EXP(B)	B	EXP(B)
성	.446	1.562*	.525	1.691*	.817	2.264***
고등학교 유형	1.193	3.296**	1.219	3.385**	1.495	4.458***
고등학교 소재지	-.491	.612	-.692	.501	-.912	.402*
가구유형	.540	1.716	.716	2.046	1.353	3.868*
형제수	-.362	.696	-.480	.619	-.851	.427**
모의 교육수준	-.112	.894	-.226	.798	-.223	.800
단기빈곤	.056	1.057	.182	1.200	1.556	4.741
장기빈곤	-.981	.375*	-1.285	.277**	-8.629	.000***
애착			1.202	3.326***	.643	1.902
단기빈곤×애착					-.583	.558
장기빈곤×애착					3.615	37.137***
-2LL	155.124		145.307		131.569	
모델 chi-sqaure	22.257***		9.817***		45.812***	

주)노동패널 6차년도(1998-2003), 332 사례

4.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이 아동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빈곤을 하나의 균질한 요소로 보지 않고 그 다양한 성격과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 자녀의 애착관계가 장기빈곤이라는 위험요인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빈곤가구에 소득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아동 발달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 · 김순규(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가을):5-32.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호.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351-374
- 김현주 · 이병헌 (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차” 『제 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David Granot & Ofra Mayseless(2001)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school in middle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5(6) 530-541
- Jenne Brooks-Gunn & Greg J. Duncan(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children and poverty*. Vol 7.No 2.
- Korenman, Miler & Siaastad (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 Marc. A. Zimmerman and Revanthy Arunkumar(1994) "Resiliency Research: Implication for Schools and Policy," *Social Policy Report: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4), 1-17
- Rank(2001) "The Effect of Poverty on America's Families :Assessing Our Research Knowledge" *Journal of Famliy Issues* Vol. 22(7) 882-903